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47호 현대불교
2007년 9월 26일(음력 8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우리는 꼭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결실을 이루려면...

문 한 해의 수확을 의미하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풍포기 하나도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서 맺은 결실을 대자연에 회향하는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는 저 자신은 정말 한 해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자주 큰 나무들이 되어서 결실을 맺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의 결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저의 내면의 근본과 상봉을 할 수 있을까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답 우리가 생각하면 곁은 발자취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것이 듣는 것도 혼자 아니고 또 보는 것도 혼자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 아니고, 먹는 것도 혼자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더불어 돌아가는 이치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걸어왔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하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목숨에 내 자생증생들이 많은 것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걸은 게 없노라 하는 겁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내세울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외부의 모든 생활 자체도 혼자 사는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이 세상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영원한 것을 우리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즉, 50% 반쪽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다 산다' 여기에도 무척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즉 말하자면 가다가 만나고 가다가 보고 가다가 듣고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비유하는 겁니다. 밥을 지어야 할 텐데 소켓이 맞지 않으면, 거기다 끼워도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못해서 밥을 못 지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내 자생증생들을 다스리면서 화(和)하게 만들어야 바로 그게 화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소켓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물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즉 말하자면 주장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안테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제물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즉 말하자면 만약에 소켓이 맞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꼭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생증생들을 남이라고

것도 없어지는 까닭에 거기다, 모든 것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가 놓아라 이런 소립니다.

그 마음의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그 나오는 데다가 직접, 딱 데 바깥에다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에다가, 모든 것은 거기다가 놓고 말하고 '너만이 이룰 수 있다. 너만이

廟를 낼 수가 있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까닭에 바로 진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과거의 나와 현실의 나가 둘이 아니게 상봉이 돼야만 되지 과거의 나가 즉, 전의 조사(祖師)들은 부(父)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나가 바로 나의 조상이니까 '부'고, 현실의 나가 '자(子)'가 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 상봉할 때,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둘이 아닌 도리의 성리를 알 수 있는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봉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전체 주장자와 주장자가 둘이 아니게끔 잘나찰 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말로 이론으로 떨어지니까 법이 될 수가 없고 법설이 될 수가 없고 한데 떨어지는 거죠. 그 음파가 한데 떨어지니까, 통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자가 날 수가 없죠. 그걸 성자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건 생산해 내는 생산처가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 마음 자체가 생산처가 되어서 바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법좌가 되어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나무가 있으면 딱따구리가 그냥 떨어놓고 쪼쪼. 쪼아서 나무가 떨어지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떨어놓고 무조건 내 큰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내 나무에 딱따구리가 쪼듯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생활하면서 해 나가야 그대로 생활이 잠선이며 생활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바로 좌선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잠선을 할 때에 생활이 없는데 부처가 어딴겠습니까? 우리들이 없는데 또 부처가 어딴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딱따구리가 쪼아서 나무가 떨어지듯, 떨어져서 그 나무의 속이 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아서 차고 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서 또 생산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깨달으면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 생산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문 저의 동생이 3년 동안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살아났는데, 지금 다시 재발을 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번에는 어렵다고, 마음의 준

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야 좋겠는 지요? 나이도 너무 어리고 할 일도 아직 많은데 편하게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의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더 살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스님, 어떻게 마음을 내 줘야 할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난 말입니다. 죽고 사는 거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릴 듣는다면 참 냉정하다고 할 테죠. 그러나 본래 죽는 것이 없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텅 텅 빈 데 텅 텅 빈 것이 오고 갈 뿐입니다. 오고 가는 사이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으면 그렇게 걱정이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맨 꼭대기에, 나무 꼭대기에 등그마니 천야만하한 데 오탁하니 섰으면 거기서 발발 떨어 한 발짝도 놓을 수 없지만, 우리가 평전에 섰다면 아주 확보할 겁니다.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이 그 옷을 벗고 또 새옷을 입게 되면 만날 마친가지고 지루하지도 않건만, 사람이 옷 벗으면 옷을 벗는다고 야단입니다. 찢어진 옷이라든가 그대로 입고 있어야 속이 후련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세 군데나 찢어져서 그게 너털거리고 같이 보인다면 창피스럽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옷을 일러 벗어 버리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찢어진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옷을 벗는 데 눈물을 흘리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부처님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옆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옷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보내 줄 것입니다.

물론 죽는다 산다 이런 것에도 착을 두지 마십시오. 살 수도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입은 거를 벗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근본에 의해서 찢어지지 않았으면 더 입을 것이고 찢어졌으면 벗을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은 자기 각자 주인공이 불성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을 믿기 이전에, 저 바깥을 믿기 이전에 참도리를 우리가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기 부처를 진짜 믿는 것이라고 봅니다.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통이 속에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면서 짓는 것은 미래의 선업 악업이, 미래에 올 것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것은 지금 나오고 미래의 현실에 올 것은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게 연방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오는 업식 그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의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연을 지은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으면 즉, 미래의 그 업을 지을 것도 없어지고 과거의 업 지은

아픈 거를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화복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깨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 하고 관(觀)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과 둘입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너와 나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이지.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위에서 서부터 직결이 돼 있고, 아래서부터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마음이 한데 잘나에 합쳐져서 잘나에 떨어지고 잘나에 합쳐져서 잘나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항상 둘이 아님을 뜻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법좌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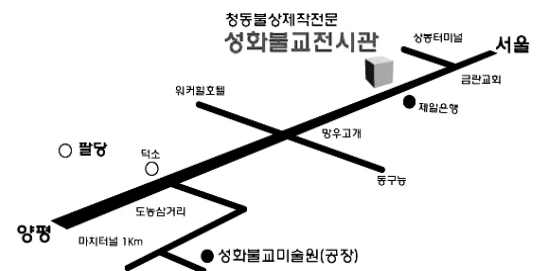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타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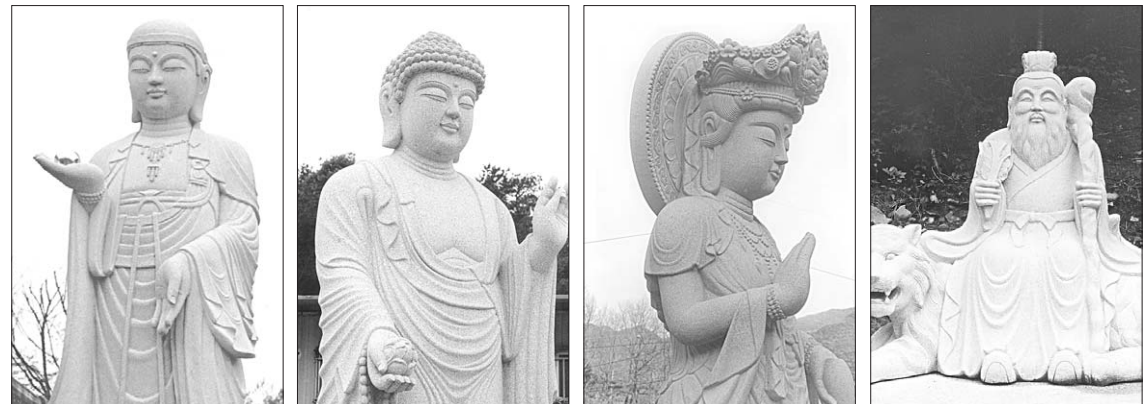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담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목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렵니다. 제방의 대덕 크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